

지역 매아리

계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호응

부안군 계획면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주민들로 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계획면 직원 5명은 10여 년 동안 과친근성을 고생하고 있으며 눈과 비 등 기상악화시 집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례관리대상 A씨의 집을 찾아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계 화면은 복지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대신 해결하는 등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듯 계획면장은 "겨울철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러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장명동주민센터 · 상명새마을금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가져

장명동주민센터와 상명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만) 직원 30여명은 지난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 5세대에 1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 배달은 장명동주민센터와 상명새마을금고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봉사활동인 '해피 홈 사업'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매일 취약계층 세대를 발굴 주거 환경 정비와 생활품 전달 및 복지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경찰, 비위예방 위한 일일 실천운동 추진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에서는 공사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나부터 시작하자는 일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동료 칭찬하기, 비위예방 문구 공유하기" 등 동료간 관심을 통해 비위로부터 안전한 가족같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평소 "칭찬을 해보지 않아서" 또는 "글을 잘못 올리면 실례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야" 등 조금은 어색하다는 분위기나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현수 서장은 "거창하게 시작해야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부단한 건전생활을 습관화 해서 아름다운 직장분위기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현장실사 거쳐 2019년 세계유산위원회서 등재 여부 최종 결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서남해안 갯벌'이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남해안 갯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도전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1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됐으며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순천·보성 갯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신청유산은 암석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지역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갯벌 퇴적으로 높은 지형지질다양성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3대 철새 이동경로 중 핵심적인 기착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고창갯벌은 습지보호지역과 탐사르습지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고창갯벌은 습지보호지역과 탐사르습지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습이 분포한 개방만형 다도해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과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팔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과 함께 갯벌 체적 스펙트럼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남해안 갯벌'의 등재 신청서는 2018년 1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장실사를 거쳐 2019년에 열리는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오는 2019년 '고창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 고창군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3관왕(고창 지석묘군, 고창농악, 고창판소리, 고창갯벌)의 브랜드를 획득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동절기 AI 방역대책 추진 앞장

고창군, 관련부서장 · 읍면장 영상회의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동절기 AI 발생 방지와 효과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이길수 부군수 주재로 협업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가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AI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이고 또한 최근 아생조류 분야에서 질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 증가 및 올해 해외 AI 발생이 예년에 비하여 많아(2016년 1,089건 → 2017년 1,706건)을 겨울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I 발생과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는 국가재난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점검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견을 나눴다.

군은 차단방역대책으로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농장주와 매일 1회 전화 또는 문자·카톡 등 농장

방역사항 확인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AI 임상증상을 매일 관찰하여 1일 평균 대비 2~3배 폐사를 증가, 3~5% 이상 산란을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철새에서 AI가 주변국에서 검출될 경우, 철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길수 고창 부군수는 "철새도래시기에 관련부서와 읍면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방역 태세를 갖추도록 AI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AI 예방을 위하여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농장내외부 청결 유지와 아생조류 차단망 설치, 소독을 위한 전실·전용장화·발판소독조 설치 및 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단풍미인쇼핑몰, '7080추억여행' 팜파티 열어

정읍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단풍미인쇼핑몰이 11일부터 12일까지 '7080추억여행'을 주제로 팜파티를 가졌다.

내장산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 팜파티에는 전라북도,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았다. 특히 파워블로거와 입점업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내장산 관광, 톱기타, 시 낭송 추억의 고고타임, 손 편지 쓰기 등 7080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 함께 했다. 또 쇼핑몰 입점농가에서

준비한 푸짐한 경품 행사와 함께 즉석매 농가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단풍미인쇼핑몰은 판로 확보와 잠재 고객 확보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전국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팜파티를 가져오고 있다.

쇼핑몰 관계자는 "7080의 감성을 주제로한 이번 팜파티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정읍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함께 쇼핑몰 입점 농가의 팜파티 열정을 전할 수 있었다"며 이후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무형문화재 원형 공개행사 성료

부안지역 무형문화재인 부안농악 보존회를 비롯한 죽염제조, 사기장, 대목장, 가사의 보유자들이 매년 1회씩 전수자들과 함께 기능과 예능을 원형 공개행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보안면 부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안농악보존회의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제34호 가사 김봉기 선생이 우리 나라 전통상악의 12가사를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제29호 죽염장효산스님이 백제불가사에서 전승된 3000년 전통의 죽염제조법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이은규 선생이 전통청자제작기법으로 재현한 고려청자와 제작기법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 제80호 대목장 김정락 선생이 전통적 건축기법의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 이음과 맞춤 집을 짓기 위한 목재의 구입에서 건물의 배



부안지역 무형문화재인 부안농악보존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보안면 부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설계과정, 목재의 치목부터 기와·단청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설명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3년 부안 세계재민리 유치는 전 세계에 부안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부안의 무형문화

재 전 종목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지역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종, 도지정 무형문화재 1종, 개인4종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보건소,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치원 교원, 고등학교 15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3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추가로 실시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임상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자의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복결핵 치료는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치료 전 부작용 검사 및 치료는 잠복결핵 치료 지정병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픈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픈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